

## 특특뉴스

###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19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오는 19일부터 시작된다고 10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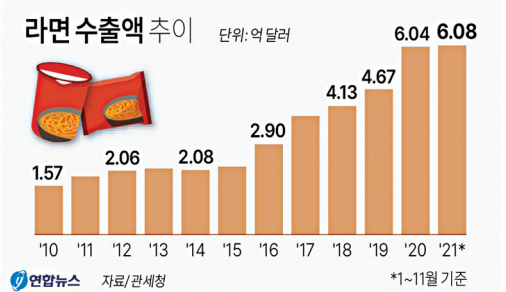
지난달 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지난해 4분기·올해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과 소기업 55만곳이 신청 대상이다.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내달 4일 자정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지원분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먼저 지급받는다. 신청자의 신용점수, 보증한도, 세금체납, 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지급된다.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이 지급되는 내달 중순에 차액을 받게 된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보다 적으면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1%의 최저금리로 향후 5년간 나눠 상환하게 된다.

정부는 신청 접수 초기 혼잡을 막기 위해 이달 23일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 그래픽 경제



### 지난해 라면 수출 사상 최대 기록

지난해 라면 수출액이 1년 만에 또다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관세청과 식품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라면 수출액은 6억790만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0.6% 증가했다. 이는 기존의 연간 최대치인 2020년의 6억357만달러 실적을 이미 넘어선 것이다. 10년 전인 2001년 1억8,673만달러의 3.3배에 달하는 것이다.

라면 수출액은 2018년 4억1,310만달러에서 2019년 4억6,700만달러로 증가했으며, 2020년에는 6억357만달러로 경종 뛰었다.

# “중소기업이 주역될 수 있는 경제환경 조성”

## 2022년 지역경제인에 듣는다

임경준  
중기중앙회 광주전남회장

### 최저임금·중대재해법 등 기업 규모 맞게 보완해야

### 중·대기업 상생 성장 필요 기업 승계 규제 개선 시급

“중소기업이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경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회장은 10일 신년사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진단하며 이같이 포부를 밝혔다.

임 회장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원자재·물류비 상승으로 지역 중소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진단하며 “특히 올해는 새로운 정부와 지방정부의 출범으로 지역 중소기업에게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임 회장은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 안정화를 위해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법 ▲노동과 고용의 균형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기업 지원 강화 ▲기업승계제도 현실화와 규제 혁파 ▲중소기업협동조합 역할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임 회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의 자발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경제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임 회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상생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중소기업에게 공정하게 나눠져야 새로운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경영 환경 관련 조례의 제·개정 등으로 인한 지역 중소기업의 어려움도 호소했다. 특히 임 회장은 탄소중립, 고용법 제·개정 등 관련 조례 및 규칙이 중소기업의 현실에 맞게 반영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며 “기업 규모와 업무량 등 중소기업 현실에 맞게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ESG 경영 도입,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과 지원책도 전했다.

임 회장은 “시급한 도입으로 대응력이 미약한 중소기업들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탄소중립위원회 보고서에 담겨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와 중기 전용 전기요금제를 하루 빨리 도입하고, 현상이 공감하는 실효성 있는 지원

책을 담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임 회장은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는 시기에 기업승계 관련 각종 규제가 걸림돌이 된다”고 말했다.

70세 이상인 중소기업 대표가 1만 명을 넘어섰고, 고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환경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기업승계 관련 규제가 신산업 출현과 혁신성장을 막는 원인이 된다는 설명이다.

임 회장은 “다수의 장수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일본의 중소기업 승계지원법 제정 등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임 회장은 “중기업들이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경영에 집중하려는 의지가 담긴 해인 만큼, 도전과 혁신으로 기업이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경제환경 구축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이 지역 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린 기자

# 지역 소매·유통업 1분기 체감경기 ‘호전’ 전망

## 광주상의, 경기전망지수 조사

광주지역 소매·유통업체들은 거리두기 단계적 완화에 대한 기대와 명절 및 신학기 시즌 등으로 소비심리가 회복되면서 1분기 체감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전망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지역 58개 소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2022년 1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를 조사한 결과 2021년 4분기(76)보다 25포인트 상승한 ‘101’로 기준치(100)를 상회하며 체감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10일 밝혔다.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 :

## 명절·신학기 등으로 매출증가 기대 업체 경쟁 심화 편의점은 감소 예상

Retail Business Survey Index)는 유통업체들의 현장 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지수가 100을 넘으면 다음 분기 경기가 이번 분기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의미하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임을 뜻한다.

경쟁항목별로 보면 매출·수익전망(76→101)은 거리두기 단계적 완화 기대와 신학기·명절시즌 등의 계절적 요인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으로 전반

기보다 전망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비용전망(86→103)은 구조조정, 광고비 절감 등 관리비용 축소 계획에 따라 전년보다 17포인트 상승하며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으며, 반면 고용전망(91→93)은 근무시간 축소 및 인원 감축, 퇴직자 미충원에 따른 자연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업체별로는 백화점(50→125)은 소

비심리 회복과 함께 보복소비 트렌드에 힘입어 고가제품·골프용품 수요 등의 증가로 전 분기 대비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대형마트(63→100)는 리뉴얼이 완료된 매장의 신규매출과 대규모 할인 행사에 따른 판매증가가 기대되며 체감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편의점(86→90)은 협업상품 판매 호조에도 불구하고 업체 내외간 경쟁 심화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나타났다.

슈퍼마켓(95→95)은 가정식 관련 소비 증가 및 근거리 쇼핑 선호 등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에 따른 내수위축과

중대형 슈퍼마켓 증가에 따른 업계 간 경쟁 심화로 전분기와 비슷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지역 소매·유통업체들은 향후 강화하고자 하는 경영역량으로 상품경쟁력(39.7%), 차별화 경쟁력(37.9%), 가격 경쟁력(24.1%), 플랫폼 경쟁력(24.1%), 디지털 경쟁력(12.1%), 물류·배송 경쟁력(3.4%)을 꼽았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유통산업이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 간 연계강화(25.9%), 방안 없음(22.4%), 온라인사업 강화(17.2%), 점포배송 경쟁력강화(17.2%), 오프라인점포 리뉴얼(8.6%) 순으로 응답했다. /이연수 기자

자치시대를 선도하는 종합시사매거진

# 월간 전남매일

2022 Vol.74 01

**커버스토리**  
김상목 김대중컨벤션센터시장 “MICE 인프라 대폭 강화 미래 신사업 발굴 역점”

**지역특집**  
1004섬 공원화 사업

**한국의 명장**  
한국의 매사냥

**“MICE 인프라 대폭 강화·미래 신사업 발굴 역점”** 커버스토리

SI·그린 등 호남권 핵심산업 연계 지역경제 활력 2025년 제2전시장 개관 사업권 대표 정시장 우득내부 직원과 소통... 민·관·학·연 핵심 전략적 마케팅지역안에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확고히 자리잡았다

**[특별 초대석] 김원익 의원**

사람 사는 세상 만들 ‘목포의 젊은 정치인’  
목포대 의과대학 설립 및 대학병원 유치코로나19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

**[신년기획] 학생 선택적 자율학습 확대**

2022년 교육과정 개정... 디지털·민주교육 확대교과학습제 확대 2025년 입학·교육회복 중점 추진

**[주목 이 사람] 최범재 시의원장**

“난임치료 지름길은 체계적 치료 계획”  
난임치료, 건강 보험 급여로 편입돼야 여성 나이 35세 이전 임신계획 추천

**[이달의 도서] 한강 작 작별하지 않는다**

부커상 수상 이후 5년, 한강 문학이 도달한 곳  
“이것이 지극한 사랑에 대한 소설이기를 본다.”

**[스포츠 & SPORTS]**

2022년은 스포츠의 해  
베이징동계올림픽·향저우아시안게임·카타르월드컵

수천년 이어져온 수렵놀이

## 매사냥

[한국의 명장] 매사냥 수천년 이어져온 수렵놀이 ‘매사냥’ 단순 포획 아닌 인공과 매가 함께하는 함작품유네스코 등재 됐지만, 지방 무형문화재 2명 그쳐

**안수기의 건강백세**

**지역특집 1004섬 공원화 사업**

세계꽃피는 힐링섬 ‘신안군’으로 떠나볼까

**이색카페** 양와당20대부터 90대까지 남녀노소 즐기는 수제 양갱

‘할메이일’ 취향 저격·SNS 소문만으로 전국구 맛집 정직·신뢰·친절·맛·인테리어 다섯 마리 토끼 다 잡은 비결